

안식일을 지키라

출 35:1-19

2021년 10월 21일(목)

1.

어제는 '유월절-칠칠절-수장절', 세 절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명령하사’...

‘명령’이라는 단어에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합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2-3절입니다.

“옛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옛새 동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일곱째 날 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덴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리라’고 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덴동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시내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2.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돈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하는 마음에서부터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쌓은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큼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쌓여지는 재물이 있고, 버려지는 재물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만 하나님께 쌓여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의 기도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는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모두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함께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

4-9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요,
10-19절은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는 기준은 ‘내 마음대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리하니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4절, “...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리하니라”

10절, “...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행하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주님은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할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삶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4.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저녁에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요기도회를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